

오늘은 2020년 3월 첫 주일입니다.  
2020 3월 1일 언약교회 이모조모입니다.

- 1)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2)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혹은 좀 더 자세한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나 혹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번거로우실수도 있겠지만, '방문자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시간에 갓난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득불 아이들이 조금씩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점이 익숙치 않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저희 교회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앞쪽으로 나와서 자리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이 뒤쪽보다는 약간이나마 좀 더 조용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공지입니다>

- 1.오늘도 앞으로도 예배는 중단되거나 폐쇄되지 않습니다.
- 2.다만, 열이나 기침등 증상이 있으신 성도분들은 교회에 연락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 3.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염려가 되시는 분은, 가정에서 예배드리셔도 됩니다.
- 4.죄송스럽지만, 앞으로 당분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려는 다른 교회 성도분들은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만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타교회 성도분들 예배 가능한지 공지하겠습니다.  
혹시 꼭 예배드리러 오실 분은 미리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pastorcho@hanmail.net](mailto:pastorcho@hanmail.net))

1. 오늘은 여러 지체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장년 50명, 중고등부 3명, 초등부 6명, 유년부 2명, 유치부 2명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2. 3월은 <영적, 육적 가족들을 격려, 권면>하는 달입니다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3. <3월> 필독서를 판매합니다.

『응서, 그 불편함에 관하여』(방정열, 세움북스)

책값은 1만원입니다.

책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보충하고 내용을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3월 오후 모임 중 한번 나눌 예정입니다.

4. <2020년 2월> 재정보고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 주중 성경공부를 우선 2팀만 시작합니다.

본문은 지난 가을본문에 이어 <창세기(下)>입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수요일 저녁(7시30분)-기혼남성팀

(2)금요일 저녁(7시30분/ 저녁식사는 6시;30분)-청년팀

6. 목요일 오전 기혼자매팀은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다음주부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개학 일정에 따라 추후 다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7. 유스 오케스트라 연습은 잠정적으로 다음 주일(8일)로 연기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시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8. 성도들께서는 당분간 교회외의 다른 외부신앙모임 참석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9. 우리 교회 주일 모임은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각자 형편, 사정 기타등등에 의해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점심식사, 오후모임에 대해서는 참석여부를 개인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10. 윤지영 자매(이호윤 엄마)가 길병원에서 인턴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길병원 음압병실등에는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몇몇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출국(이준상-미국)

12. 교회 계좌로 직접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206 001 04 148 682 언약교회

우리은행 1005-901-708982 언약교회

신한은행 100-032-008667 언약교회

이번 한주간 동안도 다들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